

# WORLDVIEW COLUMN

##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기다림의 끝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프랑켄슈타인



## 기다림의 끝

내가 생각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기대로 가득찬 시간이 있었습니까?

매일 매일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와 같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들이죠. 임신 초기에는 초음파로도 사람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태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배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대와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열한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믿음과 그 생명이 열 달을 채우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기다림은 항상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릴 때도, 시험 치르고 결과를 기다릴 때도,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릴 때도, 기다림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리기만 했지, 기다리는 동안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 빨리 끝나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람은 이제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열 달이 채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아기를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값진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다림이 즐거워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 전에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 무엇이 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알게 된 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을? 내 안에 나 외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요. 자장면을 즐겨 먹었습니다. 콜라도, 커피도. 그리고 보니 모두 검은 색이네요. 그렇지만 먹을 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먹어요. 제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요. 변화가 생긴거죠. 그렇지만 사실, 아기가 나팔관에서 수정이 되고 약 일주일간의 여정을 거쳐 자궁에 착상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새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신이 진단되기 훨씬 전이니까요. 물론 저도 몰랐죠. 저는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끝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확신과 믿음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열 달 후의 선물에 대한 믿음은 이미 받은 바와 다름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선물은 기다려야 주어지는데, 제 마음은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과 기쁨 속에 있으니까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환자입니다. 젊은 나이이고 흡연한 적도 없지만,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암이 진행되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표적치료제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능력은 한이 없는지, 그런 가운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꺼져가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던 그녀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소망보다는 절망이 오히려 그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소망을 자기 자신에서 새 생명으로 옮기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달은 못 채 워도 가능한 달수까지 최대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치료를 중단하고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합니다. 잘 기다릴수록, 잘 견딜수록 기다림의 끝에는 새 생명의 선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을 견디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절망에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기적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달을 채우고 아이는 세상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산모로서 조금은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새 생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잘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선물이 맞이해 준다는 믿음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영원처럼 살다갔다는 것이 가슴시리도록 공감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내안에 존재하는 믿음의 실체인 아기를 위해 커피도 끊었습니다. 라면도 안먹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의미가 들어있는 소리는 아기의 청각을 자극하여 뇌발달을 유도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의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고, 제 마음의 진실을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조급해하고, 결과를 빨리 볼 수 없으면 참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몰랐던 제가 왜 이렇게 기다림이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열 달 후의 아름다운 선물에 대한 믿음은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입덧도, 다리가 부어오르는 고통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도, 모두 기다림의 결과에 비하면 스쳐 지나가는 가을바람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림이 설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

